家 族 關 係 와 兒 童 發 達

<Family Rela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朱 貞 一 <서울대 · 사범대학>

Chungil Choo, *Seoul Natiansl Univ.*

해방후 「家族關係」와 「兒童發達」이라는 새로운 學問의 分野가 우리 家政學界에 導入되게 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나, 이 分野를 專門으로 硏究한 學徒가 稀少한 까닭으로 아직도 이 學問의 意義와 內容 特히 相互 관련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느낌이 있는 고로 이에 紹介코자 한다.

家 族 關 係

人生은 苦海라 하니 사람이 一生을 살아 가려면 겪어야 할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그 중 가장 견디기 어려운 試鍊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죽엄을 용납하고 孤獨을 이기는 일일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는 고로 自然의 攝理에 의하여 男女는 結婚을 하여 家庭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난 子女들은 그 父母 膝下에서 자라며 成人이 되고 血緣끼리는 親戚을 이루고, 이웃끼리는 마을을 이루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共同生活을 하게 마련인 것이다. 여기에 家族이 생기고, 村落이 생기고, 國家가 생기고, 크게는 人類의 世界가 形成되게 되었을 것이며, 이 地球上의 人類가 서로 和睦하며 共存共榮하는 것이 創造主의 意思였으리라고 믿는 것은 個人의 힘이 限없이 약한 人間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人類의 現實은 그러한 理想的 世界와는 너무도 距離가 멀다. 나라끼리 이웃끼리는 고사하고 한 집안에서도 血肉을 같이 나는 家族間에도 平和가 維持되기 힘든 지경이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리 人類의 平和가 具現되려면 모름지기 그 最少 型態의 生活共同體인 家族 안에서부터 平和를 이룩하기 전에는 도저히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닐가? 個個人의 幸福이 없이 人類의 幸福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요, 또 그 個人의 幸福이란 家族間

의 바람직한 相互關係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結局 人生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男女老少를 莫論하고 自己가 屬해 있는 家族 안에서의 情的 紐帶가 平和로워야 한다는 점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친구·이웃·동료·선후배간에 모두 人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야말로 世界平和는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어찌하여 家庭의 平和가 喪失되며 어떻게 하면 人和를 다시 찾을 수 있는가를 硏究하는 學問이 端的으로 말해서 「家族關係」라는 學問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모녀간에, 부자간에, 형제 자매지간에, 또는 고부간에, 그리고 기타 가족지간에 서로 조화되고 명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정의 분위기란 夫婦가 빚어내는 분위기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되기 어려운 것이니, 그 책임의 대부분은 각 가정의 夫婦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 夫婦란 結婚에 의하여 맺어지는 관계이니 만치 「家族關係」란 學問은 의당 결혼을 중심으로 하여 그 前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즉, 男女交際 問題, 配偶者選擇의 條件과 方法, 約婚과 結婚의 意義와 儀式, 夫婦의 適應, 產兒計畫, 育兒의 理念과 方法, 家族 相互間의 親睦과 誤樂, 家庭經濟와 家族制度의 檢討 그리고 結婚이나 家族生活과 關聯이 있는 法律의 檢討에 이르기까지 實로 廣範圍한 硏究 分野가 展開되는 것이다. 또한, 家族이 지니는 時代的인 意義와 理念에 관해서도 硏究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의 世代가 指向하는 새로운 가정에 대한 검토도 必要한 것이다. 紙面 관계상 여기서는 上記한 여러 가지 問題들을 하나씩 具體的으로 考察해 볼 여유를 갖지 못함이 유감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항상 思考의 中心을 삼아야 할 점은 역시 過去와 現在의 家庭에 비추어 앞으로 있어야 할 바람직한 家族生活의 理念과 型態에 關해서 模索하는 일이라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우선 그 中樞 理念만을 論해 보고자 한다.

家族生活의 進路

우리 나라에 있어서 李朝 末葉까지의 가족 생활의 이념을 돌이켜 보건대 그것은 즉, 祖上을 받들고 傳統을 지키며 子女를 낳아서 家系를 계승시키는 것을 그 지상 목표로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冠婚喪祭는 지나치게 중요시 되었었다. 형식적인 제사를 받들기 위한 양자 제도의 발달, 長子의 편중 상속, 조혼 및 강제 결혼의 자행, 자식을 낳기 위한 축첩의 묵인, 자식을 못 낳는 여자에 대한 냉대, 가장권의 편중과 부녀자의 예속적 생활, 대가족 제도로 말미암은 고부간의 알력과 며누리의 희생, 기타 개인의 행복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과거의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요구되고 비판없이 자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日帝의 侵略과 8.15 解放等을 계기로 우리 국내에는 급격한 사회적 변동이 많이 일어났으며 西歐文明과 民主思想이 導入됨에 따라 家族生活의 型態도 또한 불가피한 변동을 보게 되었다. 더우기 6.25動亂 以後에는 이러한 변동에 한층 더 박차가 가해져서 각 가정에 있어서의 개인의 人權이나 個性의 發揮등이 많이 중요시되고 가족간의 애정적 유대라든지 가정에 있어서의 婦女子의 지위라든지 하는 점들이 다분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思潮는 자연히 大家族制度의 점차적 붕괴(分家의 自由), 一夫一婦制度의 法的保護, 결혼에 있어서의 當事者들의 意思 尊重, 女權의 일반적 伸張, 가정에 있어서의 子女觀의 향상등 여러 가지 부산물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要約해서 말하면 가정은 점차로 民主化의 길을 밟아 온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自由와 個性 發達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社會의 急進的 發展을 促求하는 의미에서 個人的으로나 國家的으로나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보건대 이상과 같은 발전은 대부분 都市를 中心으로 이루어 졌을 뿐이고, 農村으로 과고 들면 아직도 過去의 家族生活의 遺物的 잔재가 너무도 뿌리 깊히 박혀서 先進 文明 國家나 또는 우리 나라 都市民의 生活에만 비겨 보더라도 世紀를 隔한 느낌이 있는 것은 서글프나마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인 듯 하다. 이쯤 되고 보면 앞으로의 가족 생활이 指向해야 할 바는 自明해 지는 것 같다. 우리는 國家的으로 보아 民主化의 大路를 굳건히 내어 디디고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民主精神이 각 가정의 生活마다 속속들이 파고 들어 하루 바삐 口號에 그치는 民主主義를 벗어나 各 개인이나 가정이 드높히 謳歌할 수 있는, 살아 약동하는 실천 民主主義에로 飛躍시키는 일일 것이다.

새로운 가정

그러면, 民主主義가 살아 약동하는 앞으로의 「새로운 가정」이란 어떠한 것일가 모색해 보기로 하자.

새로운 가정이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결혼은 成熟한 一男一女의 法的·情的·肉體的 結合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結合의 對相者 즉, 配偶者를 選擇하는 問題는 結婚의 幸·不幸을 直接的으로 左右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過去에는 아니, 農村에서는 아직도 父母들이 그 子女의 配偶者를 選定하고 當事者에게 結婚을 强要하다시피 하는 現像을 볼 수 있다. 서로의 性格의 相互 適否를 檢討해 볼 餘地도 없이 夫婦가 된 두 사람이 끝내 調和롭게 잘 산다면 오히려 奇蹟이라 아 니할 수 없다.

近來에 와서는 당사자끼리 自由로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농후해 졌는데, 이것은 역시 民主主義가 俱現된 樣相이라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서로 好感을 느끼는 한 쌍의 男女가 비록 자기의 감정의 理由를 말로 表現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두 사람을 서로 끌고 서로 補充할 수 있는 개성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위 사람들이 수다스럽게 是是非非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自由結婚은 높은 離婚率을 帶同하느냐는 非難의 소리가 의당 있을 것이다. 그러나, 離婚이 반드시 不幸한 것이고 持續되는 結婚은 모두 離婚보다 낫다고 누가 證明할 수 있을 것인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結婚을 할 때에는 그 결혼은 지속되든 中斷되든 不幸은 언제나 거기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지 말고 집안 어른들과 의논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한마디 충언을 해 주고 싶으며,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정적 배경을 상당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경이란 그 사람 안에 전부 살아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 爲主로 함이 좋다는 말도 過言이 아닐 듯하다.

다음에는 새로운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와 서로의 지위를 논해 보기로 하자. 지난날에 있어서는 남자의 가장권은 절대적이었고 부녀자는 물심 양면으로 그에게 예속된 생활을 하여 왔으나, 이 점은 이미 많이 변해 왔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여지가 많은 듯하다. 즉, 부부는 主從的 關係를 벗어나서 相互協同的 關係에로 發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로의 完成을 爲하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일이지 그 중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民主精神과 어긋나는 일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자들의 교양과 경제력이 남자의 그것과 비길만큼 향상하기 전에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만치, 뜻 있는 사람은 모름지기 여자 교육의 향상에 힘쓸지어다.

새로운 가정은 그가 지니는 子女觀에 있어서 또한 새로운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子女를 父母의 所有物이나 작난감 또는 심부름군 정도로 여기던 시대는 이미 지나 갔다. 앞으로의 子女들은 어린대로 하나의 人權을 지니고 태어난 貴重한 存在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하겠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 대우는 絕對的이어야 한다. 울 적마다 돌보아 주어야 하고 不便함이 表現될 때마다 그 不便이 解消되어야 하며, 모든 基本的 原始的 慾求는 充足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만 安定感이 깃든 바람직한 個性이 발달 될 수 있다고 오늘날의 精神科學者들은 말하여 주고 있다.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그들의 慾求도 또한 자라는 법이다. 갓나서는 그다지도 無力한 아이들도 부모의 정성 어린 보호하에 자라면 차츰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自立性을 이모 저모로 表現하게 된다. 結局 그들은 獨立하여 父母로 부터 떠나 가는 것이 成長의 窮極의 目的이며 自然의 攝理인 것이다. 그들은 父母를 떠나 가서 配偶者를 選擇하고 結婚을 하여 子女를 낳고 결국 父母들이 하든 일을 되풀이하며 살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父母를 떠나가서 獨立하는 것이 그들의 慾求일진댄 이 慾求를 그대로 받아 들여 주는 것도 또한 民主精神의 發露인

것이다. 어렸을 때에 욕구 충족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때로 커서도 獨立해 나갈 勇氣가 안 생기는 子女도 있을 수 있는 법이다. 또 父母가 自己의 必要上 子女를 떠내 보내지 못하고 붙들어 둘 때에는 그 子女는 到底히 幸福할 수 없는 法이다.

이쯤 되면 새로운 世代의 家族制度는 自明해진다. 子息은 나를 通過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人間이지 내것은 아닌 것이다. 어느 哲人의 말에 의하면 父母는 創造主의 손안에서 힘껏 당겨진 활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子女는 그 활의 彈力으로 말미암아 쏘아져 나가는 화살인 것이다. 이 화살이 멀리 갈수록 人類文化는 빨리 發展할 수 있는 셈이다. 활의 彈力이 不足하여 화살이 항상 가까이 떨어지면 人類文化는 항상 제자리 걸음을 免치 못 할 것이고, 활이 크게 휠 때 우리의 子女는 우리보다 훨씬 앞 선 世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멀리 가는 子女를 自己의 幸福을 爲해 안타까워 붙잡지만 말고 子息의 幸福을 爲해 微笑로서 떠내 보낼 수 있는 父母야 말로 참으로 各自의 人權을 尊重할 줄 아는 民主精神의 權化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붙잡는 사람이나 붙잡힌 사람은 서로가 다 幸福할 수 없는 법이다. 왜냐 하면, 幸福이란 도시 他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自己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父母子女之間이나 兄弟姉妹之間을 莫論하고 서로 서로가 自主的이고 獨立的인 가운데서는 協力의 美德은 저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옛날과 같이 사돈의 八寸에게 까지라도 기대고 비비대고 남의 덕을 좋아하던 세상에는 친척간이라도 자연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냉전이 그칠 새 없었던 것이다.

兒童과 家族

어린이는 누구나 一男一女 사이에 태어나게 마련이다. 물론 그 父母인 一男一女 以外에도 祖父母나 兄弟姉妹 其他의 同居人이 한 울 안에 같이 살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무어라 해도 역시 어린이 成長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그리고 미쳐야하는 사람은 그의 父母이다. 어린이의 生에 對한 첫印象, 그에 따라서 생기는 生에 對한 態度, 그리고 成長하는 동안에 習得하는 여러 가지 習慣·技術·社會性·知識은 全部 成長期의 生活의 所産이며 未就學兒童期 6年을 통하여 形成되는 個性의 堅固性은 거의 놀라울 지경이다. 물론 精神科學이 發達함에 따라 이 時期에 充足되지 못하였던 慾求를 後日 어떠한 方法으로 補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大部分의 사람은 큰 飛躍없이 이 時期에 形成된 個性을 土台로 成長을 계속할 것이고 또 一生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兒童에게 있어서의 家庭生活 或은 家庭敎育의 重要性을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一例를 들어 美國의 學者들이 結婚의 幸·不幸과 어린 시절의 家庭環境과의 聯關性에 관해서 연구 발표한 것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들에 의하면 결국 어렸을 때에 調

和的이고 協力的인 父母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들의 結婚生活도 또한 平和롭고 協助的이였으며 反對로 反目과 싸움이 그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 역시 不和의 도가니가 되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유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고 배워서 그리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社會는 언제 어떻게 발전하느냐는 反問이 의당 나오게 된다. 한 가지 多幸한 일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라고 배울 수 있으며 誠實하게 求道하며 항상 自己 向上을 꾀한다면 언젠가는 平和로운 바른 길을 發見할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록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向上의 길을 밟고 있다는 그 自體가 重要한 것이다. 왜냐 하면, 그러한 어버이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역시 그러한 태도를 배워서 끊임없이 自己 向上을 爲해 努力할 것이니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만 人間關係는 점차로 發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兒 童 發 達

위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어린이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의 개성이 결정되고 그것이 또 개인간의 관계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며, 따라서 결혼의 幸·不幸까지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면 어린이를 잘 기르고 못 기르는 것이 결국 그들의 장차의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첫장에서 말한 바 있는 人類平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兒童의 生育史가 그대로 家族間의 關係를 左右하는 要素가 되는 것이니 兒童 發達과 家族 關係의 수 學問은 서로 不可分離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잘 기르고 싶은 것은 모든 父母의 本能的 욕망이련만 父母 自身들이 內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問題들과 잠재 의식 때문에 或은 無智때문에 凡人은 아무도 自己가 바라는 만큼 훌륭한 子女를 남기고 죽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잘 기르려는 意慾은 여전히 代代로 강한 것이며 특히 요즈음 韓國의 敎育熱은 어떻게 보면 매우 높은 것도 같다. 그러나 그 敎育熱이 具現되는 方法에는 再考의 餘地가 多分히 있으며 좀 더 科學的인 檢討와 批判이 加해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린이를 잘 기르려면 우선 어린이 本然의 狀態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成長과 發達의 過程을 잘 理解함이 없이는 도저히 所期의 目標를 達成할 수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이의 基本的 慾求를 究明하고 그것을 가장 適切하게 채워 줄 수 있는 方法과 態度를 講究하는 것이 必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萬一 各家庭에 태어난 아이마다 그의 基本的 욕구가 充足되고 따라서 幸福하고 圓滿한 個人으로 發展할 수 있다면 그러한 個人들이 모여서 이룩한 家庭이나 社會는 얼마나 平和롭고 아름다울 것인가 상상하면 그것이 바로 地上의 天國일 듯하다.

그렇다면, 그 어린이의 기본적 욕구란 무엇이며 발달 과정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

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 중 어린이 욕구 충족에 대해서는 本誌에 併載되어 있는「유아기 경험과 개성」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발달 과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西紀 1950年 美國에서 열린 白堊館 會議끝에 兒童學 關係者들이 報告 兼 쓴 小冊子「兒童의 健全한 個性發達」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個性은 大體로 여덟 단계를 거쳐서 發達해 간다는 것이다. 즉, 信賴感·自律感·創始感·成就感·同一視感·親密感·父母感·完全感 등의 느낌을 차례로 充分히 맛보며 자라는 아이는 健全한 個性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들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信賴感**: 主로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는 시기에 발달하는 것이며 生理的 基本 慾求가 充分히 充足되면 어린이는 이 世上을 살기 좋은, 믿을만한 곳으로 感知하고 安定感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2. **自律感**: 自立의 첫 단계로서 스스로 먹고·앉고·걸어 다니고·놀고·옷을 입고·大小便을 가누는 일을 배우는 시기이며 이때는 스스로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自主性을 길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 **創始感**: 장차 자기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이때는 주로 소꿉 놀이를 통해서 부모 형제를 모방하고 동화를 통해서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시기이니 그러한 놀이와 상상의 기회를 많이 줌으로써 어린이의 장래에 대한 꿈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다. 주로 유치원 시절이다.
4. **成就感**: 주로 國民學校 시절이며 쓰기·읽기·셈하기·그림그리기·글짓기·뜀뛰기·공 던지기 등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다는 滿足感을 느끼는 시기이니만치 경험의 分野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5. **同一視感**: 中學校 시절이며 동무가 家族보다 더욱 그리워지는 시기이다. 처음에는 同性의 친구에게서 次次 異性의 친구에게로 關心의 分野가 넓어지며 때로는 英雄이나 偉人들과 自己와를 同一視해서 將來에 對한 抱負를 擴大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交友 指導·讀書 指導에 힘 써야 하며 어린이 취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6. **親密感**: 主로 한 사람의 異性 친구와 가까이 사귀게 되며 結婚에 대한 心的 準備를 가다듬게 된다. 家庭을 開放하여 집에서도 交際할 수 있게 해 줌이 좋다.
7. **父母感**: 結婚하고 子女를 낳아 기르므로서 父母愛라든지 犧牲的 사랑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며 子女 養育과 生計 維持에 熱中하는 時期이다.
8. **完全感**: 내 子息을 길러 보고 나니 다른 사람의 자식들도 다 그만큼 貴重한 存在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사람이 圓滿해 지며 四海同胞의 完德의 境地에 達할 것을 人生觀으로 삼는다.

에릭슨(Erick Erickson)이란 學者에 의하면 사람은 이 여덟 가지 단계中 각 단계에

있을 때마다 自己가 처해 있는 그 단계 단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함으로써 즉 느껴야 할 것을 느껴야 할만큼 충분히 느낄 기회를 가짐으로써 건전한 개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말 한바 있거니와 어린이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기회의 박탈인가 한다. 사람이 각자 타고난 잠재 능력이란 무한한 것이라고 믿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아들은 얼마든지 계발되고 발휘되어 개인의 행복 및 人類社會의 福祉를 위해서 동원될 수 있거늘 너무도 많은 경우에 실로 可恐할만큼 많은 경우에 어린이들의 잠재 능력은 봉오리채 짓밟혀 억제 당하고 유린 당하며 피어 보지 못한채 시들고 마는 것이 아닌가? 무릇 兒童이 發達해 가는 힘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늘 父母들은 단순히 이를 받들어 억제하지만 말고 계발시켜 준들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러한 世上이 올 수 있도록 어린이를 길러 보자는 것이 「兒童發達」의 궁극의 목적이라 하겠다.

〔대한 가정학회지〕 祝 〔제3호 발간〕

배터는 三岡 코끼리 표

⊙完全無臭精製施設
1. 사라다油·덴푸라油
1. 豚 脂 油
1. 牛 脂 油

⊙最新式 치이스 製造施設

製造元 **三岡油脂化學株式會社**

本 社 : 서울特別市永登浦區文來洞6街21番地
電 ⑥ 1365 ⑥ 2548 ⑥ 0989

서울連絡事務所 : 서울特別市中區太平路2街90番地
海南빌딩 212호실
電 ② 0316 ⑧ 3169